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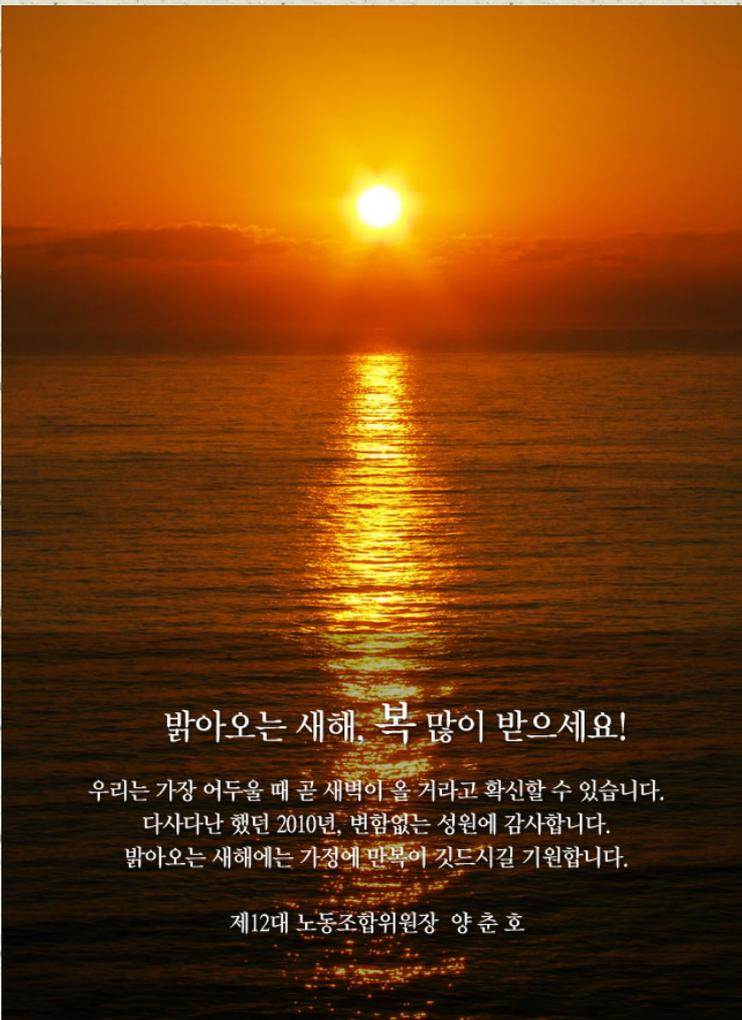
12월 동향

- 02 | 제23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 03 | 제9차 대의원회의
- 06 |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
- 08 | 제29주 이영식 목사 추모식 참석
- 09 | 제24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 10 | 학원정상화 관련 교과부 방문
- 14 | 종합복지관 개관식 참석
- 14 | 제54차 집행부회의 개최
- 16 | 해외 행정연수위원회 참석
- 16 | 제25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 16 | 집행부 송년 모임
- 21 | 제55차 집행부회의 개최

알림터

(대학교육 2010년 11-12월호, <http://magazine.kcu.e.or.kr>)

- **특집 : 언론사의 대학평가**
  - 언론사 대학평가의 공과1 : 대학의 입장을 중심으로, 김경성(서울교대)
  - 국내외 언론사 대학평가 현황, 이영학(동대)
  - 언론사 대학평가의 공과2 :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중심으로, 강홍준(중앙일보)
  -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 품질보증과 대학평가의 국제동향, 오현선(경희대)
- **총장칼럼**
  - 대학정책 구조와 지방대학의 활로, 송용호(충남대 총장)
  - 21세기와 여성 리더십, 김선옥(이화여대 총장)
- **취업 성공사례 : 성공 취업의 지름길**
  - 정책제언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하다, 송기창(숙명여대)
    -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문홍안(건국대)
  - 대학에 바란다
    - 대학입학 수시모집 전형기간을 늘이자, 김동욱(경북 사곡고)
    - 입학사정관제, 고등학교 교사의 입장을 이해해야, 김태진(대전고)
  - 지상도전
    - 학자금대출제한 제도 도입, 강병삼(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제한으로 누가 피해를 보나?, 조기조(경남대)



밝아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가장 어두울 때 곧 새벽이 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0년,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제12대 노동조합위원장 양춘호

새해 여는 프롤로그

말에 관한 小考

임숙경 | 국제교육지원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까닭은 동물과는 달리 말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원시사회에서는 동물의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말의 역사는 크로마뇽인 이후로 4만 2천여년이 된 셈이며 동물의 소리로 출발해서 점점 일정한 틀을 갖추어 가면서 오늘날의 말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6,000여종의 말이 존재한다는 글을 읽고 적잖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도 무심히 쓰는 말도 무수한 세월을 거쳐 생겨난 것입니다.

전생 상처보다 치명적인 것이 사람의 말  
하지만 말, 말, 말..... 말 때문에 낭패를 보거나 한 마디 말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가 다르듯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 다른 말의 차이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서양역언에 '전쟁으로 인한 상처보다 더 치명적인 것인 것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혀가 총칼보다도 잔인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경계하란 말일 것입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든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든가 말에 관한 우리나라의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만큼 말을 조심하고,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득이 된다는 뜻이겠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로 남아  
우리는 매일 매일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대화라는 것이 항상 즐겁고 유쾌한 것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 싸우고 헐뜯는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이라는 조직사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기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동료 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관계가 얼얼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고 후회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면 주위 담을 수도 없는 것이 말입니다. 항상 조심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이놈의 입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말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께 도 이 지면을 빌어 용서를 빌어 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로 새해를 시작하자  
신묘년, 2011년 소리로도 없이 밝았습니다. 세월은 붙잡으려고 해도 무심히 흘러가고 내 옆의 동료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웃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칭찬하는 말,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 맛깔스럽고 멋스러운 말로 새해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위기탈출 프로젝트 >>> 건배사

개념 있는 건배사

지난해 11월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오바마!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 로 건배사를 외친 한 공직자는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다. 건배사 외침 일이 많은 연말연시다. 건배사는 짧은 몇 마디로 좌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하지만, 앞의 공직자와 같은 무개념 건배사는 분위기를 급추락시키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요즘 건배사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나 도서까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홍보부)

- **선창과 후창을 이용한 예** >>> 선창 : 조통세평! (조국통일과 세계평화) 후창 : 개나발~(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뒤이어 "○○팀! 만만세~" 등으로 선 : 후창을 응용할 수 있다.
- **추임새를 사용해 호응 얻기** >>> "준비됐습니까? 맞습니까?" 같은 말로 호응을 끌어낸다. "SAY, HO~(HO!), SAY, YEAH(YEAH!)" 등을 외쳐 콘서트장 느낌으로 주목을 끌 수 있다.
- **삼행시로 의미 전달하기** >>> "좀 더 사랑할걸, 좀 더 즐길걸, 좀 더 베풀걸, 올 한 해 후회를 담아 깔깔걸, 웃어봅시다. 자, 깔깔걸!" 그 밖에도 번사또(번치 말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고사리(교합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등이 있다.
- **콘텐츠 인용으로 마음 움직이기** >>> "Love is a losing game"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사랑이란 지는 게임입니다.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사랑으로 더 사랑을 키워갑시다" 와 같이.
- **철학을 담아 공감대 형성하기** >>> 아메리카 인디언의 격언을 빌려보자.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 **친근한 일상으로 독려하기** >>> "삼겹살을 먹는데, 상추 값이 올랐다고 아내가 삼겹살만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추는 흔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비록 우리가 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도 새해에는 없으면 허전한, 아니 삼겹살보다 비싼 상추가 됩시다."

위하때!



1월의 생일

01.02	조영국	국제교류팀
01.04	권주희	입학사정관팀
01.09	박선미	DU문화원
01.10	임지영	홍보팀
01.11	강진우	시설팀
01.13	강희복	자연과학대학
01.14	김지홍	학술전자정보팀
01.15	최광호	정책사업특별팀
01.15	신종석	도서정보팀
01.16	김현섭	정보통신운영팀
01.16	이은수	정보통신운영팀
01.17	이창현	총무팀
01.19	송주희	총무팀
01.20	박재숙	학술운영관리팀
01.25	최대갑	법과대학
01.25	윤세진	예산재정팀
01.25	정진욱	산학연구지원팀
01.30	박재원	교육혁신팀
01.31	김용규	정보통신운영팀

\*이번호 생일자부터는 주민번호 앞자리 기준으로 정리됩니다.